



금성교



나주협동상회



구진포 터널

# 나주시, 근대문화유산 문화재 지정 '속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보존·활용 방안 등 논의  
나주금융조합·협동상회 등  
1910년대 축조물 5곳  
대표 역사관광자원 육성



나주금융조합

나주시가 관내 근대문화유산을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나주시는 최근 시청 소회의실에서 근대문화유산 문화재지정 학술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근대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 발굴과 재조명을 위해 지난해 12월 착수한 이번 용역은 나주시 관내 1910년대 축조된 건축물의 건축기법, 구조물 가치, 역사적 상징성 등을 조사, 연구했다. 근대문화유산은 개화기부터 6·25전쟁 전후 기간에 축조된 역사·문화·예술·사회·종교 등 각 분야의 기념적 의미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 유물 등을 뜻한다. 시기상 구조물 대부분이 일제 강점기 때 지어졌거나 개인 소유에 따른 훼손, 처분

등으로 보존상 어려움이 있어 문화재청은 2001년부터 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해 관리하고 있다. 보고회에서는 조선대 건축학부 신승주 교수의 발표를 통해 나주금융조합(중앙동 31-2), 금남금융조합(금계동 19), 나주협동상회(중앙동 50-1), 구진포 터널, 금성교 등 1910년대 축조물 5개소에 대한 역사적 고증과 상징성, 등록 문화재 신청 여부 등을 다뤘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신간회 나주지부

사용했던 나주협동상회는 일제강점기 독립 운동가들의 거점공간으로 나주의 근대를 대표하는 장소로 꼽혔다. 또 나주금융조합에서 최초로 발견된 설계서인 '현척도(現尺圖)'는 당시 유행했던 설계 및 건축기법을 엿볼 수 있는 사료로 보존 가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제강점기인 1910년에 개설된 금성교는 산업화에 따른 교통량 증가 및 하천 폭확장으로 교각 등 노후화 돼 철근콘크리트 교각과 상판을 증설해 나주천 사이를 잇고 있다.

금성교의 경우 원형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 등록문화재로 가치는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현 상태로 존치할 경우 노후 훼손의 우려가 있어 나주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인 역사적 상징성을 갖춘 건조물로서 교량의 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910년대 광주-나주-목포 등을 경유하는 호남선의 주요 통로로 활용된 구진포 터널과 현재 외곽의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금남금융조합도 "근대문화유산으로서 보존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근대문화유산 5개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등록문화재로 지정, 나주를 대표하는 역사관광자원으로 활용해갈 것"이라며 "선조 때부터 이어져온 나주인의 삶과 애환이 깃든 지역 근대문화유산을 지역민과 함께 공유하고 가꾸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나주시는 용역 최종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올해 하반기 근대문화유산 5개소에 대한 문화재지정 등록문화재 등록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참여 공모

'마중물'·'모樂모樂' 등 3개 분야  
사전설명회 참석해야 신청 자격

나주시는 지역·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참여 공모 사업을 실시한다. 나주시는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지속 가능한 공동체 구현을 위해 '2019년 나주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참여 공모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업비 7500만원을 지원하는 이번 공모는 총 3개 분야로 ▲'마중물'(공익 강좌를 기획하고 운영할 3인 이상의 주민 모임) ▲'모樂모樂'(공동체 활동을 진행하고자 하는 5인 이상 공동체) ▲'달樂날樂'(지역민들이 활용 가능한 공간을 소유, 임차하고 있는 개인 및 단체, 법인) 등이다. 시는 사전설명회가 열리는 23일부터 26일까지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후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 사업별 컨설팅 등을 진행한 후 심사과정을 통해 사업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 계획이다. 신청 희망자는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3차례에 걸쳐 열리는 '사전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지역 주민, 모임·단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공모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061-337-9902)에 문의하거나 나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정윤량 나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다양한 주민활동에 대한 지원 계기를 만들고, 대상자의 사업 수행 역량 및 지역 내 공동체들의 성장을 지원해나갈 예정"이라며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



나주시는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지속 가능한 공동체 구현을 위한 '2019년 나주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참여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대표적인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참여 프로그램인 '마중물' 사업의 워크숍 모습. (나주시 제공)

## 대통령기 전국 사이클 대회 14일 개막

19일까지 87팀 410명 참가

'제36회 대통령기 전국 사이클 대회'가 나주시 벨로드롬사이클경기장에서 열린다. 나주시는 '제36회 대통령기 전국 사이클 대회'가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나주시 대호동 '전남도 벨로드롬사이클경기장'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대한자전거연맹이 주최하고 전남도자전거연맹이 주관해 87개팀 410명의 선수가 기량을 펼친다. 시는 지난 2000년부터 대회를 개최하며 사이클 중추도시로써 후원과 우수한 스포츠 시설인프라 제공을 통해 아시아와 세계 대회 출전 선수 발굴과 육성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이번 대회는 나주 다시먼 출신으로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사이클 4관왕 나이름 선수와 2관왕을 차지한 이주미 선수 등 국가대표로 활동하는 선수 10명이 출전을 예고하고 있어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국제대회에서 잇달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국내 사이클 선수들의 파이팅 넘치는 선전을 기원한다"며 "우리 시 사이클팀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이번 대회를 위해 구슬땀을 흘려온 선수들이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회 기간 시설 편의, 인프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kwangju.co.kr

##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합니다

시, 서비스 대상자 신청 접수

나주시가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실시한다. 나주시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삶에 질 향상을 위해서 12월까지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신청 대상자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 내 다양한 공간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상생활을 자발적으로 선택해 낮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돌봄 서비스다. 서비스는 ▲월 88시간(1일 4시간)의 기본형 ▲월 44시간(단축형) ▲기본형에 12시간을 더한 확장형 서비스를 선택해 무료

로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 범위는 '장애 인식복지상' 등록된 만 18세부터 64세까지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다. 또 가구 소득·재산 수준은 제한이 없으나,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근로활동 참여, 거주시설 입소자, 낮 시간대 민간 및 공공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신청 문의 및 상담은 관할 읍·면·동 및 나주시청 사회복지과 또는 전남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주간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지역사회 참여를 증진시켜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kwangju.co.kr

## 나주시, 30억 투입 시설원에 현대화 지원

나주시가 사계절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강화 등을 위해 낡고 효율이 떨어지는 시설 원예하우스를 현대화된 첨단 농업 시설로 탈바꿈시킨다. 나주시는 농가 생산성 향상과 소득 안정을 위해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 '시설원에 현대화사업'을 연말까지 추진한다. 지원 분야는 규모화된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신규 설치, 소규모 농가를 위한 '330㎡(100평)형 소형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하우스 내부 시설 보완 사업 등이다. 모든 비닐하우스는 태풍과 폭설 등 각종 기상재해에도 견딜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의 풍속과 적설량을 기준으로

설계한 '내재해형 비닐하우스'로 시공한다. 하우스 내부에는 양액 자동공급 장치, 보온커튼, 정보통신기술(ICT)이 융복합된 '온실 환경제어 시스템' 설치를 지원한다. 나주시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시설원에 현대화에 참여기로 확정된 153농가를 대상으로 최근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추진 요령 교육을 실시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시설원에 분야 사업 지원을 통해 사계절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농산물 품질 향상뿐만 아니라 시설원에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이농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9년 4월호

3월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새로운 관광 트렌드 '시티투어'가 뜬다  
57년간의 역망 정음성 오페라 '망부운'

**새로운 관광 트렌드 시티투어**

특집

새 이야기  
꽃차 전문가가 알려주는  
꽃차의 매력과 응용법

해외 문화 현장  
'세계를 위한 세계의 박물관' 런던 영국박물관

문화 화제  
정음성 오페라 '망부운' 복원의 두 주역  
연출 정갑근 감독, 번역 영화시 교수

소설가 김용태가 전하는 '내 이웃의 소확행'  
12겹 가면으로 관객과 행복 나누는 김영록씨  
"놀이가 일이 되면 일상엔 즐거움이 흐르죠"

에향 초대석

**나무 인문학자 강판권**  
"나무와 더불어사는 삶 권합니다"

문량이 숨 쉬는 문학관을 찾아서  
문학의 숲에 뜬 별들의 고향  
장흥 천관문학관

문화도시, 도서관이 미래다  
우리나라 첫 공공도서관  
부산시민도서관

강제운 시인의 남도의 섬과 특속을  
'윤선도의 무릉도원' 보길도  
최고급 술안주 전복포

트렌드 따라잡기  
세대, 장소 떠나  
EDM이 대세

에향이 만난 이 사람  
장편 '메이드 인 강남' 펄펜 작가 주원규  
질문 던지는 사진작가 문선희  
KIA 타이거즈 영어 특역 담당 도영빈

정음수의 위대한 예술가들의 저항과 선택  
게오르크 짐멜 vs. 발터 벤야민

전시 리뷰 <이정섭의 스케치 여행이야기>전

한국영화 100년-남도 시네마 산책  
남도 영화사의 증인-광주극장  
예술전문관 지키며 100년을 꿈 꾸다

문화로 함께 한 세대수도 손지켜  
창고, 청춘문화공간으로 변신  
순천만국가정원 볼나들이 '팩'